

각 주체의 자주적 영역확대로 '민주총장 옹립'

◇...총장선거제도가 오는 19일 전체교수회의 비상총회에서 확정된다.

전체교수회의에서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교수회 대의원의 규정안을 살펴보면 교수·학생·직원대표가 각 3인이 임우보수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등 학내어려움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있다.

본고는 민주적 총장선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지적과 더불어 원활한 민주적 총장선거를 위해 마련되었다. (편집자 주)

1. 올바른 관점정립을 위한 서언

70년대 운동을 일련 마감하며 그 발원지인 학내에서 80년대 구국운동의 힘찬 활로를 열어주는데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애국민주세력에게 많은 성과와 교훈을 안겨주었다. 또한 80년 5월은 그 당시 구국운동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해 준 단면도 있었다. 우리는 그 한계에 근거하여 이후 올바른 변혁운동상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변혁이론의 과학성이다. 또한 운동의 과학성에 근거한 무기로서의 조직, 즉 미계와 그와 결탁한 시대판세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힘인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실천적 교훈을 피의 잔흔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학성이란 미명하에 분분했던 논리의 사변성은 시간을 경과하면서 애국민주세력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다. 물론 목적이 있으면 수단이 있기 마련이고, 이 수단에 의하여 목적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거나 확대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측면으로 목적을 위한 단순종속관계만으로 수단을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

변혁이론상의 이러한 좌우경적인 편향이 함입될 수 있는 내용을 무조건 서로 배타시키는 편협관점에서 본다면 옳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 시기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한층 심화된 운동의 과학적이론을 구축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 학생운동의 구상적인 전대배이라는 조직체를 갖출 수 있었다. 비단, 학생운동뿐 아니라 기간에 열악하게만 느껴졌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민중진영이 이제 구국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제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난날 노력의 결실로 생산의 주역인 친민노동자의 힘찬 결집체인 '전노협'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조직적정돈이나 각계층연대수준 및 의식수준의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88년 동국대학교에서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학원자주화 투쟁은 그동안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던 사회구조적 모순과 학원모순의 연관성 및 올바른 학원으로서의 자기 상에 대한 불투명함을 투쟁의 과정속에서 실천적으로 획득한 예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발원형태인 현재 남한의

교육제도 속에서 대학교육 또한 반공반북지배이데올로기 창출의 장으로서의 위치를 거부하고, 민중운동에 대한 지배계급의 이념적 매개, 즉 나약한 소부르주아로 전락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자체거부를 통해 이제, 올바른 학문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식민지 지배계급의 사상적, 인적, 물적구조를 학원내에서 혁신시켜 나가는 투쟁으로 사상적 기반을 다져 놓았다. 더불어, 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근거하고 자주성을 옹호하여 학우들 스스로 주인되는 투쟁으로 더 나아가 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에서 학원이라는 지역적 단위가 총체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원의 자주적 민주영향이 변혁운동을 성취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인적, 물적토대를 형성하는 투쟁이기도 했다. 덧붙여 설명하면, 학원이 올바른 학문공동체로서의 자기목적성을 가진 다 했을 때 이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상충되었던 교육과 피교육이라는 수직적관계를 올바른 관계정립과 이것을 방해하는 제반 모순구조의 혁신을 위한 연대로서뿐만 아닌 인간본연의 지향점을 각 구성원의 수평적 관계속에서 해결해왔다는 운동이 바로 학원자주화 투쟁인 것이다.

'자주적 중흥운동'으로서의 동국대학자주화 투쟁의 획기적 단계를 마친다는 성과이외에 건설의 관점에서 학원자주의 대안을 제시했고 조직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하여 80년대 학생운동사에 하나의 모범으로 우뚝섰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관점상의 문제를 길게 설명한 것은 학자부 2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것도 적대적 투쟁이었던 8개월이라는 제도적 틀거리에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수권능력에 대한 문제인 민주적 총장선거를 앞두고 일제에서 제기되는 전술상의 문제-그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근거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다-를 올바르게 견제해 내고 우리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사상적 통일도 이렇기 위해서이다.

판단의 근거는 민중투쟁을 얼마나 자주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인사가 시적으로 얼마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대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놓은 이후 민주적 총장을 옹립한다.

2. 민주총장 옹립에 대하여

하나의 조직에는-설령 그것이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제언

크건, 작건, 이해관계로 얽혔던,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범주이건간에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구성원이 있어야하며, 또한 조직구성원을 유기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규율과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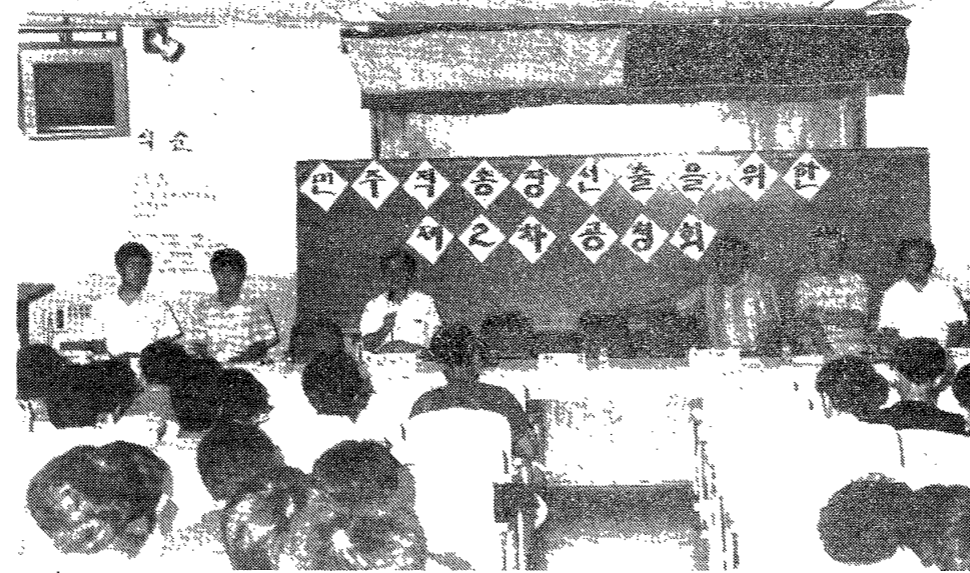
인류역사는 바로 지배계급이 그들의 규율과 질서를 폭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에 대항하여 인간본연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였다. 자본주의의 권력자본의 질서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클라드의 권력을 장악한 체제이다. 또한 식민지라는 것도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가 아니다. 그것은 학원자주세력의 수권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하에 축적되는 인적, 물적 토대의 건설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일단 승리를 위한 방법론상 전술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투쟁을 위한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

(1) 무엇을 민주총장이라 하는가?

원칙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해는 그만큼 투쟁의 폭을 협소화시킨다. 원칙에 대한 물이해는 방법에 있어 좌우경적 오류만을 낳을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최종 결

정기 쉬운 문제가 있다. 누가 총장이 되느냐는 증대한 문제이다. 민주적이고 덕망있고, 개혁의지가 있는 분이 총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83년 동국에 획기적 일익을 그어낼 수 있을 만한 중차대한 사안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조건에 합당한 한 민주인사가 총장이 되는 것은 우리 투쟁의 목표란 그러므로 인물이 당선포를 위한 표를 중심에 놓고 사교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육, 학생, 직원들 각 주체들의 자주적 영역의 확대라는 과정의 필연적 결과로 인물을 바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선거과정에서 각 주



◇제도만을 최고 목표로 삼는 모험주의적 발상을 할 경우 교수들의 기존질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자주화의 내용을 무시하여 자칫 투쟁의 대립점을 교수와 학생으로 그어낼 우려가 있다.

'후보자공청회'로 여론수렴을

국의 국가권력이 장악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주성이 옹호될 수 있는 사회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세력이 권력을 틀어 쥐어야 한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민중을 위한 권력이 될 수 있다.

학원에서 총장이라는 직위는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인사가, 예산권, 제반 행정운영권이 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총장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자주화된 학원의 건설을 앞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상태를 반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접근은 한순간에 우연적으로 되는 것

절정인 인물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할때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을 경계하며 정리하여 보자. 과정적으로서는, 진보적이고 정치색이 짙은 후보를 학생회 역량 가지고 독자적으로 영입하려는 발상이다. 이는 학원자주의 주체로서 교수들을 대항시킬뿐만 아니라 심한 반대세력에 봉착할 수 있다. 우경적 오류로서는, 지나치게 당선가능성을 타산하여 역사적으로 유능한 동학의 총장상에 대한 인력을 잃어버리고 개인중심으로 평가하거나 심지어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 누구와 제휴할 것인가 등의 개략적 발상으로 빠져들기 쉽다. 이외에 또한 하나의 편향으로 빠

하게 인물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민주총장을 옹립할 수 있는 토대의 혁신과 아울러 그것을 가로막는 제반 악재의 타파, 그리하여 학교-재단-중단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총체적 혁신의 관점에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주적 혁신을 위한 각 구성원들의 지위와 권리가 강화되고 자주적 영역의 확대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어떤 관점에서 민주적 총장 선출을 할 것인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체적 혁신의 관점에서 전개하여야 한다.

우와 비슷한 예기를 하나 해 보겠다.

동대에 두명의 총장후보가 있다고 하자. 한명은 나름대로 소양있는 민주인사이고 다른 한명은 봉정 반학자투 인사이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로 기숙사건립이나 도서관 장

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인건은 스스로의 권리투쟁을 높여 왔으며 참여와 공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형식을 생취할 수 있었다.

착취계급을 위해서 법의 정신이 왜곡되고 제도들이 경제외적 폭력으로 그 사회에 관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바로 사회발전 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제도들의 형식적 틀거리가 민주주의 척도를 가늠하는 절대명제는 될 수 없다. 즉 제도 그 자체는 자기 운동성이 없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결국 사람의 문제로 봉착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민주적인 인물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말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식의 편향이나 그러한 예를 들면서 스스로 검열하여 보자. 첫째, 총장선거에서 제도를 단순히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일회용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실용주의적 관점이다. 이것은 교수들을 대항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스스로 협소화시킬 수도 있다. 둘째, 제도만을 최고 목표로 삼는 모험주의적 발상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교수사회의속에 잔존해 있는 기존질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나 자주화내용의 한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자칫 잘못된 투쟁의 대립점을 교수와 학생으로 그어 낼 우려가 있다. 셋째, 제도를 예로부터 경시하여 인물의 당락만을 바라보는 선거모리배와 같은 발상이다. 이러한 편향을 준엄하게 검열하고 민주적 제도개혁 투쟁을 민주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명확히 인식하자. 요약하여 정리하면, 제단의 호선배제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제단의 기록권을 분산시킴과 아울러 학내 각 주체들의 결정권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고 학생과 직원의 참여와 선거과정의 공개를 실현시키는 것은 총장선출에 학원의 각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대중적 당위를 집약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의 고취와 선구화되어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형식을 위주로 사교하지 말고 내용을 중심으로 사교하자.

(3) 제도와 인물에 대하여

무릇 만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또 한 모든 법은 만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인류역사는 이러한 사회의 지향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

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인건은 스스로의 권리투쟁을 높여 왔으며 참여와 공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형식을 생취할 수 있었다.

정권-학교-재단에 대한 총체적 혁신정립

개량·모험주의적 인식편향 극복해야

민주적 제도-인물의 상호조화가 과제

3. 결론을 대신하며

문득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우리가 가고 있는 학원자주의 배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동아인이라면 이 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배를 움직이려고 하니 배의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 거기에서 초행길이라 가는 목적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가야하는지도 막막하다. 나침반 바늘은 제 가리킬 방향을 제대로 가늠 못하고, 돛은 쫓겨서도 고작한 구멍이 솟고 뿜어져 나오며, 배가 너무 흔들려 물이 스며들고 있다. 게다가 선원은 벌써부터 축축 늘어져 있다. 모든 것이 삐걱거리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부실한 곳이 있으면 공동으로 때려막고 하나씩 고치고 만들어서 우리의 목적지로 힘찬 순항을 개시하자.

김성규 (문과대 사회과)

'동국인의 집' 가맹업체 및 할인카드 이용회원모집

동국대학교에서는 동국가족의 애교심 함양과 보다 효율적인 후생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및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각종 업체를 가맹점으로 하는 「동국인의 집」체인(Chain) 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국인의 집」은 올바른 소비생활 유도도 동국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과 공동체 실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국발전의 새 장을 여는데 있습니다. 동국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국인의 집' 가맹업체 모집

1. 사업개시일: 1990년 3월 2일(예정)
2. 모집 기간: 1989년 12월 1일~1990년 1월 15일
3. 신청 장소: 동국대학교 후생복지과
4. 가입 자격: (1) 동국대학교(원) 졸업생 및 그 직계가족 운영업체 (2) 재학생과 교·직원 및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5. 해당 지역: 전국대상
6. 가맹업종: 특별히 제한없음(예: 상품판매, 시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등)
7. 등록서류: (1) 신청서 1부(본교 소정양식)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부(직계가족업체 등록에 한함)
8. 할인률: 가맹업체 등록시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품목에 대해 할인을 기재

- *가맹업체 및 회원 특전사항**
1. 본교 부속병원 및 시설물 이용 할인
 2. 전국사찰(조계종) 출입시 할인(협의를중)
 3. 본교 지정업체 이용시 할인
 4. 재학생과 졸업생의 부업 및 취업 알선
 5. 가맹업체 수첩제작 배부

'동국인의 집' 할인카드 회원모집

1. 카드 사용일: 1990년 3월 2일(예정)
2. 회원가입기간: 1989. 12. 1~1990. 1. 30(신청서 교부 및 접수)
3. 신청 장소: 동국대학교 후생복지과
4. 회원가입자격: (1) 동국대학교(원) 졸업생 및 그 직계가족 (2) 동국대학교(원) 재학생과 교·직원 및 그 직계가족
5. 회원가입방법: (1) 졸업생...회합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 (2) 재학생 및 교·직원...자동적으로 회원이 됨(※직계가족 이용도 가능함)
6. 회원가입서류: (1) 신청서 1부(본교 소정양식) (2) 반명함판 사진 2매
7. 할인범위: 가맹업체 표시품목 및 할인율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후생복지과로 문의 바람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02) 267-8131-9 (교) 3555, 3556

동국대학교

'심볼마크' 현상 공모

「동국인의 집」가맹업체 표시용 「심볼마크」를 아래와 같이 현상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 래

1. 작품마감: 1990년 1월 15일까지
2. 접수처: 동국대학교 후생복지과
3. 작품규격: 가맹업체 표시용임을 감안하여 용도가 적의조절할 것.
4. 작품내용: ① 동국대학교 건학이념 구현 ② 동국인의 萬古成長의지 ③ 동국가족의 협동심과 공동체적식등을 표현하며, 색도는 2도이내로 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릴 것.
5. 시상내역: 당선작 1편...총장상패 및 부상(단, 당선작이 없을 때는 가작으로 대신함)
6. 당선작발표: 1990년 2월 10일 이전(개별 통보 및 본교게시판)

'정권의 도전' 새로운 기조로 선명히 부각

80년대 변혁운동 점검 전진 그리고 승리

1. 머리말

한국 노동운동의 현주소와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작업의 첫 출발은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과 이를 기초로한 정치세력화 및 노동운동의 성장이라는 역사발전의 합법적성이 관철되는 과정을 그 주·객관적 조건과 더불어 엄밀히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 시대를 열었던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89년말 현재 노동자계급의 전국적 중심체인 '진노협' 건설을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 이르러 80년대 노동운동사의 개괄과 정리는 기간의 역사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사회·경제적 배경' 및 그러한 변화의 계급적 성격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내포하는 연속성과 합법적성속에서의 일관성있는 운동역사로 기록될 때에만 올바른 파악과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건의 흐름과 추이에만 주목하려는 서술체계의 평면성은 자칫 '객관주의'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한국 변혁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의 한 기점으로 기록될 80년대를 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 변혁운동의 흐름속에서 차지하는 노동운동 발전상(像)에 대한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해석 및 평가는 후일, 한국 사회변혁의 전망을 가능케 하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더없이 중요한 과제를 하나 내걸고자 한다. 주제의 방대함에 비해, 지면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크게 이념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 그리고 투쟁연대적 측면에서 80년대 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보겠다. 노동운동의 합법적 발전 과정속에서 노동자계급이 잃어지고 나아가야 할 것으로의 과제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하고자 한다.

2. 몸말

가. 이념적 측면

80년대 노동운동을 관통하는 이념적 추이의 변화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해본다면, '하나의 기조와 두개

의 영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투쟁으로 시작된 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조합 자체가 불온시되던 유신체제하의 폭압적 정치질서에 맞서, 실로 처절한 항쟁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위기업별 노조의 테두리속에서 고립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경제적 권력투쟁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잃어지고있는 정치, 경제적 모순의 증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변혁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던 80년 광주민중항쟁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 및 정치권력 영역의 도전이라는 새로운 기조를 역사위에 선명히 부각시켰고 동시에, 막연하게 인식되어왔던 미국의 본질에 대한 냉정한 폭로와 함께 변혁운동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반성과 문제제기를 던져 주었던 일대 분수령이었다.

미명하에 합법적 노동조합운동의 뿌리를 송두리채 뽑아버리려는 전두환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은 경제개발노조에 대한 해산명령을 필두로하여 민주노조 파괴공작 및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해고와 구속조치로 이어지고, 노동조합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하였다. 그 후 노동운동을 지도하던 대대주의 그룹들은 반체제화되고 학생운동 출신의 인텔리활동가들 역시 단순한 반정부투쟁의 수준을 넘는 반체

◇글 쓰는 차례

1. 반미 자주화에서 제기된 문제
2. 조국통일 운동의 성과와 한계
3. 노동운동과 전위당 건설
4. 통일전선의 문제

~85년의 노동운동의 정치지향성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있어, 정치투쟁의 요구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주체로 세우기위해 분투하던 '서울노동운동연합'(약칭

인되기 시작한 '대중노선'에 대한 강조와 노동자계급 및 전 민중의 민족적 과제를 중시하는 새로운 이념에 의해 사상·이론전선의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면서 또 한편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른바 '선도투쟁'에 대한 비판과 노동운동의 정치주의적 편향에 대



◇80년대 노동운동은 고립·분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진노협' '업종별 협의회' 등을 건설, 연대의 새 지평을 열었다.

선도투쟁서 '대중투쟁'으로 판도변화 정치투쟁 지도위한 전위체 건설이 과제

제외적 속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며 대거 노동현장에 투신하게 된다.

이념적 전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계기는 80년대 중반을 전후로하여 광범위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원전'과 '원전'의 위험을 통해 불붙기 시작한 치열한 이념투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구조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필요성과 그에 기초한 변혁운동노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정치투쟁'개념의 도입과 그 중요성의 제기, 합법·비합법 소그룹을 통한 정치학술 및 정치적 요구를 정면으로 내걸고 싸웠던 구로동맹파투쟁, 84

서노련)은 한국 노동사에 일획을 그어준 경험과 성과를 심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동맹파의 즉각적인 성과와 함께, 경제투쟁에 대한 형식적 반대와 협소했던 정치투쟁 전술로 일원화된 정치투쟁방향과 더불어 내외의 신랄한 비판속에서 5-3선투쟁을 전후로 하여 정권의 탄압에 의해 출범 1년 여만에 와해되었다.

서노련와해 이후, 심각한 사상적 혼란과 조직적 분열속에서 노동운동의 이론·조직·전술에 이르러가 지 광범위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력과 일련의 분열양상은 96년을 전후로하여 도

한 반비판으로서 제기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대중운동'의 적극적 도입은 노동운동의 선진역량이 분열과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렇다할 조직적 준비도 없이, 전국적 규모의 파업투쟁의 불길을 당겼던 87년 노동자투쟁시기를 경과하면서 노동운동내의 하나의 경향성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조직적 측면

80년대 노동운동과정에서 조직적 차원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85년 상반기, 서노련결성을 전후로하여 대우, 기업별 노조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공동의 정치투

쟁을 통해 광범위하게 배출되기 시작한 '노동조합조직'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88년 6월에 결성, 노동운동의 상설 공동투쟁체로서,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전국적 연대의 기틀마련 및 전진전선의 사심상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온 '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자신의 주임부인 민주노조에 대한 지원, 지도와 정치투쟁의 수행 그리고 타민중운동체력의 연대활동수행이라는 기간의 활동성상에 기초하여 현재, 자신의 위상 및 전진전선에 있어서 새로운 위치부여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들이다. 그리고 현재, 87-88년의 대중투쟁을 통해 광범위하게 배출되기 시

작한 각 지역의 선진노동자층을 어떠한 방식으로 묶어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선진노동자조직'건설을 둘러싼 조직노선의 다양한 의견제시 및 현실적 건설경로에 대한 모색의 과정은, 노동운동의 합법적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정치적 지도수행과 단위노조간, 지역간 연대의 과제 및 타 계급·계층에 대한 노동자계급 계급대중의 관철이라는 과제수행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러한 조직은 어떠한 경로로 건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이론투쟁과 주체적 건설노력속에서 현실화 될 것이다.

다. 투쟁연대적 측면

의식적, 조직적인 면에서 단위가 엄밀 노동조합운동의 뿌리를 강화해 가지고 있는 한국 노동자계급에 계되어, 자본가와 정권의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연대전선의 구축은 노동운동발전 전제 실로 중차대한 과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80년대 노동운동사를 통해 볼 때,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의 고립분산적인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은 85년 지역내 공동투쟁의 조직화로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던 구로동맹파의 경험과, 87년파업투쟁 이후, 전국 각 지역차원에서 만들어진 '진노협' 및 '업종별 협의회'의 건설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러한 지역 및 동일업종별 협의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조직발전상의 필연적 귀결적인 '산별체제'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진보요인이 분명하다.

다. 계급·계층과의 투쟁연대적 측면에서 볼 때, 80년대 노동운동은 85-86년의 개헌투쟁시기와 87년 6월 민주화대투쟁시기 그리고 대선,

총선시기를 거치면서, 진출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타계급, 계층에 대한 노동자계급 계급대중을 결집시키기 위해 투쟁의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싸워온 과정이었다. 전국적 단일대오의 노동자계급 대중조직이 건설되고,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민중의 광범위한 정치적 진출과 함께, 전체 민족민주운동권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 강고한 연대들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3.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지역과 업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일한 계급적 이해에 기초한 '진국조직'을 건설한다는 사실은 현실적 실재 및 조직역량의 면은 접어들고라도 현 한국노동의 독립을 위협하는 노동자계급 대중운동사상의 중대한 전진이다. 이는 이후 '산별체제'로의 명확한 자기지향속에서 노동의 어용성을 극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노동 산하의 수많은 중간노조들을 건립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담당해갈 조직의 위상 및 성격에서 노동조합조직과 명백히 구분되는 정치(전위)조직이 건설되고, 전 노협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한 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임을 다해간다면 이 땅의 노동운동은 멀지 않은 장래에 정치체제의 주도권을 원저게 움켜쥐고 노동해방의 그 날을 향해 노도와 같이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박태영
(우리노동연구소 연구원)

11월 총결기

“무자비한 탄압을 무자비하게 들고 들어왔습니 다”

“금남로에 맺힌이 채 가시기 전에 민주를 갈망하는 학우의 심장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습니다”

“11월 2일 이철규열사 경례식에 참가하려다 총기난사를 당하고 서울로 올라온 전남대학교 투쟁결사대의 절규.”

“학원탄압분쇄 및 학원투쟁을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가

이어서 김봉을 당해 1백여명이 연행되고 저 혼자만 간신히 올라왔 습니다”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의 비통한 인사말, 프락치장요-구속수배-외문사로 이어지는 학원탄압 실상이 각 대 표자들의 입을 통해

해 속속히 고발되는 과정에서 무기가마져 달문을 잃은 학생들 기대 학생들을 저지하던 전경의 바리케이트를 뚫으며 달려나가는 한편, 여학생들은 타학교 남학생들과 마지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등 동지애의식을 발휘했다.

각학교 대표자소개가 끝난 오

“진노협” 분립될 지난해(1034호) 호) 내용중 '전임부총장 학원침탈사태 발표가 있었다. 으로부터 임무인수서를 '업무중 "5-3동맹' 사건은 은폐조작임 4대총학생회장으로부터'로 바로 이 분명함에도 현정권은 조국의

<h3 style="text-align: center;">전체교수 비상총회</h3> <h4 style="text-align: center;">개최 안내</h4> <p style="text-align: center;">본 교수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체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일시: 1989년 11월 19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캠퍼스 동국관 L301</p> <p>안건: 1) '동국대학교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통과 2) 동국대학교 차기 총장후보 선거일정 논의</p> <p style="text-align: right;">1989년 11월 13일 동국대학교 교수회 총회장 김 용 정</p>	<h3 style="text-align: center;">1990년 군종 장교요원 선발</h3> <p>● 선발인원: ○○ 명</p> <p>● 선발일자: 가. 원서교부: 1989년 11월 13일~18일 나. 원서결수: 1989년 11월 20일~21일 다. 서류전형: 1989년 11월 22일 오전 10시 라. 면. 집: 1989년 11월 22일 오후 1시</p> <p>● 전형장소: 총무원 점선실</p> <p>● 응시자격</p> <p>가. 사상이 건전하고 성품이 단정하며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 나. 중립동국대학교 불교대학(미술학과는 제외함)을 졸업한 자로서 본종승적을 취득하였거나 오계를 수계한 자 다. 군인사법 제10조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병역의무이행을 기피하지 아니한 자 마. 입관당시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p> <p>● 구비서류</p> <p>가. 지원서(소정양식) 4통 나. 추천서(소정양식) 4통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통 라. 호적초본·주민등록등본 5통 마. 신원증명서 4통 바. 병적확인서 2통 사. 승적확인 또는 수계증명서 1통 아. 사진(반명함판) 각 10매 자. 신원진술서 4통</p> <p>● 서류접수처: 총무원 교무부</p> <p>※ 기타 상세한 것은 총무원 교무부(733-8646)로 문의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불기 2533(1989)년 11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p>	<h3 style="text-align: center;">예비군 보충교육 소집</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89후반기 사격훈련 불참자 ② 추가전입자: '89학년도 복학생으로서 대학전입(편성)이전지역에서 교육될 시간이 16시간 미달자 ③ 신고불참자(증빙서 첨부) ④ 지역에서 보충교육 의뢰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일시: 1989년 11월 20일~29일 (9일간, 일요일제외) ② 교육장소: 학생중앙군사학교(문무대) ③ 교육진행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불참시간이 72시간 이내인자는 89년 11월 20일~29일 동안에 본인이 불참한 시간 전부를 필해야 합니다. 나. 교육불참시간이 72시간 이상인 자는 90년도에 이월되어 추가교육이 진행됩니다. 3.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집합시간 준수(07:50분까지 도착): 동국대학교 교육은 21일부터 시작 ② 지연도착 및 교육중 무단 이탈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당일 전체교육을 불참으로 처리함 ③ 교육대상 전원은 89년 11월 10일까지 해당대학 교학과에서 인장지참 보충교육 통지서를 필히 수령하기 바랍니다. ④ 이번 보충교육은 마지막 기회이며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교육불참시에는 자동고발조치 됩니다. ⑤ 중앙군사학교 입구(구 육군교도소입구)에서 학교버스 대기하고 있으니 시간(07:50분)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버스 이용을 못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1989년 11월 일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p>	<h3 style="text-align: center;">동국대학교 개교 83주년 기념</h3> <h2 style="text-align: center;">제3회 불교경전 독후감 현상모집</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 상: ① 일반인 ② 대학생 ③ 고등학생 2. 내 용: 불교경전 중 택1 (경이 길면 일부분을 대상으로 해도 무방함) * 고등학생은 도서관에 비치된 「불교경전」을 대본으로 해도 됨. 3. 원고의 분량: ① 일반 및 대학생 200자 원고용지 20장 내외 ② 고등학생 200자 원고용지 15장 내외 4. 당선작 및 교료: ① 최우수작...1편, 교료 300,000원 ② 우수 작...가. 일반부 및 대학부 각 1편, 교료 200,000원 나. 고등부 1편, 교료 150,000원 ③ 가 작...각부별 3편, 교료 각 100,000원 ④ 입 선 작...100편, 상품증정 * 10편 이상의 입선작을 제출한 학교, 또는 단체는 지도교사 및 지도법사에 대하여 별도 포상함(일금 100,000원) 5. 제출마감: 1989년 11월 30일까지(단, 당일 우체국소인 유효) 6.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번지 동국대학교 역경원 (우편번호: 100-715) 7. 당선작 발표: 1989년 12월 13일 불교신문 8. 심사위원: 사계 권위자를 위촉하며 당선작과 함께 공표함 9. 시상일시 및 장소: 1989년 12월 23일(토요일) 동국대학교 역경원 <p>※ 기타 문의사항은 동국대학교 역경원(전화: 직통 267-8578, 교환 267-8131~9)으로 문의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최 동국대학교 역경원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p>
------------------------------------------------------------------------------------------------------------------------------------------------------------------------------------------------------------------------------------------------------------------------------------------------------------------------------------------------------------------------------------------------------------------------------------------------	---------------------------------------------------------------------------------------------------------------------------------------------------------------------------------------------------------------------------------------------------------------------------------------------------------------------------------------------------------------------------------------------------------------------------------------------------------------------------------------------------------------------------------------------------------------------------------------------------------------------------------------------------------------------------------------------------------------------------------------------------------------------------------------------------------------------------	-------------------------------------------------------------------------------------------------------------------------------------------------------------------------------------------------------------------------------------------------------------------------------------------------------------------------------------------------------------------------------------------------------------------------------------------------------------------------------------------------------------------------------------------------------------------------------------------------------------------------------------------------------------------------------------------------------------------------------------------------------------------------------------------------------------------------------------------------------------------------------------------------------------------------------------------------------------------------------------------------------------------------------------------------------------------------------------------------------------------------------------------------	----------------------------------------------------------------------------------------------------------------------------------------------------------------------------------------------------------------------------------------------------------------------------------------------------------------------------------------------------------------------------------------------------------------------------------------------------------------------------------------------------------------------------------------------------------------------------------------------------------------------------------------------------------------------------------------------------------------------------------------------------------------------------------------------------------------------------------------------------------------------------------------------------------------------------------------------------------------------------------------------------------------------------

80년대 문학운동을 점검한다 ③

1. 80년대 계급투쟁의 전진

45~48/50~53년 간의 노동자계급 진영의 정치적 부동성과 미제국주의 폭력적 개입에 의한 두차례에 걸친 계급투쟁의 참패는 40년에 걸쳐서 이 땅에 계급운동의 추세를 가져

2. 노동해방문학론의 전사(前史)

1) 민족문학론
60년대 후반의 시문학론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실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단절해 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백남청씨가 주도하는 민족문학론은 현재의 불과 같은 눈

민중적 민족문학론은 기존 '민족문학론'을 비판하면서 '민중주체'의 민족문학 건설과 '진주적 운동성'과 '구체적 현실성'을 창작방법의 중심축으로 들고 나왔다.
특히 기존 민족문학론에 비해서 민중을 문학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은 일단 일보전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도달

점 문예조직의 건설임을 잘 알 려 확대재생산하는 개방적 노동문학론 - 정화진, 김해희

◇글 쓰는 차례

1. 시-민중적 삶의 실체화(이동식·문학평론가)
2. 소설-주체적 역사인식의 확산(서경석·문학평론가)
3. 평론-민족문학논쟁의 발전 확대(문예운동-사회변혁 역량의 조직성(임규환·노동해방문학편집위원))
4. 문예운동-사회변혁 역량의 조직성(임규환·노동해방문학편집위원)
5. 90년대 문학운동의 전망-민중문학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임수근·문학평론가)

달하나 千江에



鄭鎮環

意識化教育이라고 하면 항상 그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意識化教育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誤解하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意識化란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분별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쳐 있는 상태 및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어' 있고 그것에 대해 內面化되어 있어 그것에 대한 행동을 취할 상태에 처한 상태를 가리켜 意識化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분별, 意識化教育이란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요 사물에 대한 辨別力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意識化教育은 나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분별 意識化教育은 덴마크의 그로트뮈르가 불란서에서 전개된 公衆教育運動을 중심으로한 국민 또는 민중교육에서 출발하여 주로 국민대중 및 서민 또는 일반 시민의 국가통치를 위한 의식교육, 정신교육에 역점을 둔 사회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치하였던 1920년대에 이미 일제에 의한 경제적 착취, 민족적 차별, 교육을 통한 '민중문화 말살'에 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를 정립하여 일제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을 정치시키고 민족해방을 기하기 위한 이념으로 그것을 출현시켜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실천된 意識化教育의 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화 교육은 최근에 와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증시하고 社會改

의식화 교육

鄭鎮環 (사범대교수·교육행정학)

革 지향적인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주장되고 강조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레이리(Paulo Freire)같은 이는 성인 문맹자의 교육을 증시하였으며 學習者와 教師와의 대등한 관계를 통한 교육을 증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教育思想은 학습자의 意識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 취급되는 해방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프레이리는 피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意識化教育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남미 여러나라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고 있는 나라도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意識化教育은 기존체제를 부정하고 진부시키려는 이념적 무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그것은 그릇된 역사적 내지는 비판 의식을 갖고 기존체제에 대한 도전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意識化된 學生 또는 教師를 흔히 容共 또는 左傾으로 보는 것 같다. 그들이 진정한 옹공 또는 좌경이라면 물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社會發展을 위한 이념적 무장투쟁이라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意識化教育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위치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대항 인식을 위한 교육이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원리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교육이며, 사회역사에 대한 진보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이라고 분별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것은 강화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땅에 모순과 그릇된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물리적 폭력이 발발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다.

노동자계급 지도문예이론의 확립과정

노동현실 체계화한 민족문학전선 구축해야

있다. 1980년 고립된 피의 광주 무장투쟁기는 빛받지는 종단과 포화에 육신 날라가고 사라졌으나 잊혀졌던 피의 혁명적 계급이 살아있는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이후 87년 노동자계급의 영웅적인 대교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뒤엎을 근본적 혁명의 주체로서의 자신됨을 역사의 전면에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의구조를 갖추어 나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계급적 한계-뿌리부르조아 민족주의적 한계는 80년 중반 이후부터 민족적 민족문학론의 집요한 우회적 반박에, 그리고 87년 노동자계급이 역사의 전면에서 부상한 이후 지극히 완전한 현실대응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분

점은 문화주의와 정형주의에 다름 아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현재의 운동공간은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포섭-노동-생산과정에서의 형식적-실질적 이중 포섭에 의한 헤게모니권력의 관철 뿐만 아니라 이의 헤게모니는 재생산 공간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사회라는 운동의 물질적 기초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생산공간에서의 부르조아지 헤게모니의 관철에 의해서 노동자 자신 또한 부당히 부르조아지 의식에 감염 침습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독자적 생애에서의 대항의 글쓰기는 개방주의적-문화주의에 호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의 이러한 주체(노동자)-이념(노동자계급이념)에 대한 혼동과 물질적 기초에 대한 망각(그리하여 그러한 운동은 근본적 혁명 후에서의 즉각적인 과제일 수 있는 것이다)은 그들의 관념적 급진성-소시리성을 그대로 표

현 노동현실 체계화한 민족문학전선 구축해야

김기홍(뿌리부르조아 당파적 문예)과 노동해방문학-박노해, 배무산, 백두산 전투혁명장

우리는 87년 대교투쟁을 경과점으로 하여 노동자계급 당파성과 뿌리부르조아 당파성은 계급분화 이후의 형태인 정치적 헤게모니 관철의 상이함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의 관철을 둘러싸고 현재 노동자계급투쟁의 진군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사상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는 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로 대중적 계급투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전과 같이 계급투쟁이 몇몇 소수 선진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민중적 차원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다. 또한 현 시대의 계급투쟁을 규정하는 근본특징을 위의 조건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조직 건설의 과제, 즉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전위 당(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위사령부)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념의 선전전동의 전면화를 요구하는 시대가기도 하다.



최철권 (문학평론가)

1920년대 KAPF 문예의 전진성에 대한 전면적 부정, 제3세계 리얼리즘의 주체와 세계의 미학적 관련성의 비파괴성 등은 부분적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계급투쟁에서의 중간적 지위 고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문학을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라 했을 때, 또한 노동자계급의 의식 주입의 도구라 했을 때, 당면 임무가 과학적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결합이라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독자적 주체를 문학의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이념의 확립-생산과 이를 통한 계급 의식화 그리고 이를 위한 독자

적 문예조직의 건설임을 잘 알려 확대재생산하는 개방적 노동문학론 - 정화진, 김해희

이러한 현대계 계급투쟁의 근본적 성격 속에서 오 몇일전인 11월 11-12일 노동자대회로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노동현실을 전국의 조직인 전노협 결성 투쟁을 위한 물리적 투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계급투쟁의 전진과정-그것이 왜곡되고 지체되거나-문학운동에 반영되고 형성조건을 이루는 바, 이러한 총체적 시각 속에서(관철을 담지 않더라도) 80년대 문학운동과 이후의 발전경로를

1) 민족적 민족문학론
80년대 중반 절기된 민중투쟁의 성과에 추동되어 등장한 채광성, 김명인, 백진기 등의

이러한 민족문화와 민족적 민족문학론은 87년 이후 '정당' 노동자계급운동에서의 즉각적 요구 과학적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융합, 노동자로서의 전면적 계급의식화라는 현실의 과제를 당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문화와 민족적 민족문학론은 87년 이후 '정당' 노동자계급운동에서의 즉각적 요구 과학적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융합, 노동자로서의 전면적 계급의식화라는 현실의 과제를 당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현대계 계급투쟁의 근본적 성격 속에서 오 몇일전인 11월 11-12일 노동자대회로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노동현실을 전국의 조직인 전노협 결성 투쟁을 위한 물리적 투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계급투쟁의 전진과정-그것이 왜곡되고 지체되거나-문학운동에 반영되고 형성조건을 이루는 바, 이러한 총체적 시각 속에서(관철을 담지 않더라도) 80년대 문학운동과 이후의 발전경로를

이러한 민족문화와 민족적 민족문학론은 87년 이후 '정당' 노동자계급운동에서의 즉각적 요구 과학적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융합, 노동자로서의 전면적 계급의식화라는 현실의 과제를 당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문화와 민족적 민족문학론은 87년 이후 '정당' 노동자계급운동에서의 즉각적 요구 과학적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융합, 노동자로서의 전면적 계급의식화라는 현실의 과제를 당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문화와 민족적 민족문학론은 87년 이후 '정당' 노동자계급운동에서의 즉각적 요구 과학적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의 융합, 노동자로서의 전면적 계급의식화라는 현실의 과제를 당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노동해방문학의 성립은 역사적 필요으로, 합법적 역사행정 과정상의 산출임을 분명히 해두는 상에서 논의를 출발시켜 한다. 우선 노동해방문학은 노동자계급 당파성을 주요지도원리로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임노동의 대립적 투쟁 그에게 기초한 계급투쟁을 수행하지 않고는 폭력적으로 부르조아 국가권력을 타도하지 않고는 언제나 임금노예로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기초로 부터 나오는 노동자의 미학적 기초라고 있다. 또한 문예생산방법으로서의 노동자계급 현실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해방문학' 10월호에 실린 조영환의 '반노해방'과 '백두산'을 참조하라)

이러한 현대계 계급투쟁의 역사와 정형(민중적 해방),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투쟁의 역사와 정형, 혁명적 노동해방의 사상적 기초를 노동자계급의 강령에 의해서 당문학의 임무와 목표와 방향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데닝이 '당문학과 당문학'에서 "전체 프롤레타리아트

우리의 이 시대의 노동해방문학의 성립은 역사적 필요으로, 합법적 역사행정 과정상의 산출임을 분명히 해두는 상에서 논의를 출발시켜 한다. 우선 노동해방문학은 노동자계급 당파성을 주요지도원리로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임노동의 대립적 투쟁 그에게 기초한 계급투쟁을 수행하지 않고는 폭력적으로 부르조아 국가권력을 타도하지 않고는 언제나 임금노예로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기초로 부터 나오는 노동자의 미학적 기초라고 있다. 또한 문예생산방법으로서의 노동자계급 현실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해방문학' 10월호에 실린 조영환의 '반노해방'과 '백두산'을 참조하라)

계사관

민중문화교실

제9기 민중문화교실이 서울 민중연합민중학교 주최로 지난 13일부터 12월2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개최된다.
기간 서울민중연합회 부설로 운영되는 민중문화교실에서 서울민중연합 연회폐원장을 겸한 것인데 내용은 공명체제, 영화, 민요, 미술, 탈춤, 연극, 풍자, 졸업공연등이며 수강료는 2만원이다.
문의는 서대문구 흥제4동 139-22 (전화번호 739-0751)

가야금·탈춤 강습

국립음악원의 11월 무료국악 강습이 6일부터 24일까지 오후 6시에 마련된다. 강습종목은 가야금, 단소, 봉산탈춤 등이다. (Tel. 585-3151)

제47회 백범강좌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회장대리=김우중)는 제47회 백범강좌를 오는 25일 오후3시 백범회관 강당에서 갖는다. 강사는 진취규(이화여대 정외과)교수로 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의 성격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문화담신

'바람꽃' 공연
극단 창조극장이 16일까지 오후4시, 7시 문예회관소극장에서 '바람꽃'을 공연한다. 이병원작, 심재현연출, 출연 이윤희, 송수영, 조한희외
(Tel. 701-9805)

특유지컬 '가스펠'

특유지컬 '가스펠'이 오는 30일까지 하오4시, 7시 명동예술극장에서 극단 뿌리가 공연한다.

판소리교실

'우리리당'에서는 오는 16일부터 12월9일까지 4주간(매주 목·토 7시30분) 판소리교실을 개최한다. 화비는 1인당 2만원이며 강사는 판소리 심정자 이수자 이규호씨이다.
(문의는 313-7169)

봉산탈춤 강습회

탈춤마루의 봉산탈춤과 황해도 민요 및 장구 실기강습회가 15일-12월14일까지 탈춤마루 연습실에서 열린다.
(Tel. 466-2174)

호남풍물강습회

놀이문화연구소는 호남최대 풍물강습회를 7월~12월8일 매 주 화·목 오후7시 신촌모터리 의 본 연구소 연습실에서 연다.
(Tel. 714-5381)

동약廣場

동인활동

고전강독회
전통문화연구회는 1일부터 12월30일까지 고전강독회를 갖는다.
과목은 ▲孟子·中庸(강사:李延燮·문화재단) ▲大學·論語(강사:安延·민중문화추진회)
한편 1일부터 30일까지 교양한문강좌도 개설한다. 과목: 明心寶鑑·四子大學 (Tel. 762-8401)

범국민문학상

숙명여대가 주최하는 「범국민 문학상」이 20등을 맞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응모, 접수된다.

동약기자석

학교주변 안내판
중설·개선 시급
우리학교는 유취장 서울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방화안내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기까지 무척 애를 먹게 된다.
현재 퇴계로가와 5가사이의 너거리 모퉁이에는 비교적 큰 학교안내판이 제일명원안내판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개의 안내판중 우리학교 안내판은 날이 어두워지면 조명이 켜지지 않는 관계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반면 제일명원안내판은 안내판 바로 위에 조명시설이 돼 있어 낮보다

개정집시법'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지난 10일 법조 도서관앞에서 열렸던 '학원집시법'을 위한 연합집회'에서 세종대를 비롯한 경기대, 조선대생들이 함께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 학교밖에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들의 원천봉쇄에 발이 묶여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밖에서 서성대고 있어야 했다.
경부에서 집시법개정후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는 물론, 다음날 열린 전노협집회 역시 계속적인 봉쇄가 실시됐다.
본교생들이 이 기간동안 받은 피해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잠시 학교밖을 나갔다가 올때도 서너차례의 질문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피해의 차이를 떠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집시법시위에 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과연 정부에서 말하는 '평화시위'의 관평과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평화시위'의 허위와 진상규명을 위해 부득이 다시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6공화국이 민주와 평화를 건설코자한다면 정부는 기만적인 집시법이 아닌 법다운

대자보·현수막 스스로 치워야

경주캠퍼스에 다시금 건너가 말이 붙어오면서 후보 홍보를 하기로 한 대자보가 한두개씩 붙기 시작했고 교문을 들어서기도 전부터 눈에 띄는 일찍이 지난 유인물과 붙인것이 덧붙인 무질서한 모습이 홍보보다는 오히려 보이는데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적은수의 홍보물로 최대효과를 위해, 가장 눈에 걸리는 장소 확보를 찾아 갈수록 강력해지는 점착물로 치장하는 행위와 행사가 지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붙어있는등 수법도 다양하기만하다. 물론, 학교에 고용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들 모두가 대자보나 현수막을 떼는 일에만 매달릴수는 없다.
다시금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마당에 학교내에서 학생들 손에 의해 붙은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지만, 작은일부 뒷처리까지 깨끗하게 모든 일이 정리되었다고 할수있으며 동국의 얼굴도 보다 깨끗해질 수 있듯이 이제 동국인 모두가 주인이 되기위해 주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내시설물이용에 주인인식회복절실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2층을 지나다보면, 자동판매기 앞에서 인상을 오만상(?) 켜고서 손으로 마구 때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오래돼 자주 고장이 나거나 고장때도 오래동안 방치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학생복지위원회의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사용자들도 합리하게 다루기때문에 고장이 잦은 것일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인인식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본지는 자판기뿐만 아니라 학내 모든 시설물을 내지 이러한 예상을 가지고 대하는 주인인식을 동국인에게 고하되, 아울러 학내에서도 고장수리 빠른 수리 및 낮은 자판기 교환등으로 편의 인상을 쟁취하거나 먹은(?) 돈의 환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동약기자석

학교주변 안내판
중설·개선 시급
우리학교는 유취장 서울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방화안내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기까지 무척 애를 먹게 된다.
현재 퇴계로가와 5가사이의 너거리 모퉁이에는 비교적 큰 학교안내판이 제일명원안내판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개의 안내판중 우리학교 안내판은 날이 어두워지면 조명이 켜지지 않는 관계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반면 제일명원안내판은 안내판 바로 위에 조명시설이 돼 있어 낮보다

동약기자석

학교주변 안내판
중설·개선 시급
우리학교는 유취장 서울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방화안내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기까지 무척 애를 먹게 된다.
현재 퇴계로가와 5가사이의 너거리 모퉁이에는 비교적 큰 학교안내판이 제일명원안내판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개의 안내판중 우리학교 안내판은 날이 어두워지면 조명이 켜지지 않는 관계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반면 제일명원안내판은 안내판 바로 위에 조명시설이 돼 있어 낮보다

동약기자석

학교주변 안내판
중설·개선 시급
우리학교는 유취장 서울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방화안내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기까지 무척 애를 먹게 된다.
현재 퇴계로가와 5가사이의 너거리 모퉁이에는 비교적 큰 학교안내판이 제일명원안내판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개의 안내판중 우리학교 안내판은 날이 어두워지면 조명이 켜지지 않는 관계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반면 제일명원안내판은 안내판 바로 위에 조명시설이 돼 있어 낮보다

동약기자석

학교주변 안내판
중설·개선 시급
우리학교는 유취장 서울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방화안내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기까지 무척 애를 먹게 된다.
현재 퇴계로가와 5가사이의 너거리 모퉁이에는 비교적 큰 학교안내판이 제일명원안내판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개의 안내판중 우리학교 안내판은 날이 어두워지면 조명이 켜지지 않는 관계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반면 제일명원안내판은 안내판 바로 위에 조명시설이 돼 있어 낮보다

동약기자석

학교주변 안내판
중설·개선 시급
우리학교는 유취장 서울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방화안내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기까지 무척 애를 먹게 된다.
현재 퇴계로가와 5가사이의 너거리 모퉁이에는 비교적 큰 학교안내판이 제일명원안내판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개의 안내판중 우리학교 안내판은 날이 어두워지면 조명이 켜지지 않는 관계로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반면 제일명원안내판은 안내판 바로 위에 조명시설이 돼 있어 낮보다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이한조 (논과대 농학과)

대	호	중	쇄
총	장	출	판
학	적	향	평
공	화	성	개
대	적	민	관
위	상	제	위
정	이	문	지

